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검정업무 대행”

2006년 4월 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및 고무보트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게 되는 안전검사와 검정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대행받아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검사 및 검정업무를 수행한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수상레저기구는 최초 등록시에 신규검사를, 등록 후 1년 또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수상레저기구는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 신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정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시 실시하는 신규검사를 생략토록 하고 있으며, 검정은 제조 또는 수입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간이하게 실시한다.

한편 협회는 새로이 대행하게 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검정업무 수행에 앞서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와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005년도 “올해의 KST인” 선발

협회는 2005년 한해 동안 고객서비스 향상, 협회 대외 이미지 제고, 기술교류 및 사업확대 등에서 업무성과가 탁월하여 “2005년도 올해의 KST인” 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지난 2월 27일 올해의 직원패 증정과 함께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3박 4일동안 중국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협회는 2005년도에 협회를 빛낸 직원 8명을 “올해의 KST인”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선도그룹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협회 비전달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전문 컨설팅 기관인 윌리엄연구소에서 협회 “선도그룹”으로 양성할 인력 20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윌리엄연구소의 “리더십 3일 집중코스”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자기역량개발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며, 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인 실천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윌리엄 3일 집중코스” 교육훈련 장면 -



- 교육훈련이 끝나고 강사들과의 기념사진 -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관련 간담회 개최

지난 3월 7일 디젤기관 제작업체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NOx검사 대상이 되는 연속최대출력 400마력 이상의 디젤기관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 등을 청취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은 관계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디젤기관 업체와의 간담회 장면 -

“신규직원 공채”

협회는 선박검사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06년도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기술직(선체, 기관)으로서 자격기준은 4년제대학 이상의 해당학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전공분야 경력자(조선, 기관, 전기, 설계분야)는 전형시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3. 14(화)부터 3. 31(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st.or.kr)를 참조하면 된다.